

2015년 오리산업 전망



이강현

한국오리협회 전무

2014년 오리산업은 AI로 시작하여 AI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월 16일 전북 고창의 오리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14. 12월 현재까지도 종식되지 않고 있다. 2014년 발생한 AI는 국내에서 발생유례가 없는 H5N8형으로써 발생초기 많은 언론에서 보도함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를 증폭시켰고 그 결과 엄청난 소비감소로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14.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국가적인 소비심리 위축까지 더하여 가금농가, 관련업체, 식당 등 오리산업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한해였다.

또한 2014년에는 영연방, 중국, 베트남 등 농업강대국들과의 FTA가 타결되면서 농축산업 전체의 피해와 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영연방 FTA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된 시점인 지난 10.23일, 한국오리협회를 비롯한 축산생산자단체는 공동으로 FTA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 축산인 총 쫓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후 축산단체장들은 축산농가의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무기한 단식투쟁을 벌였다. 그 결과 국회에서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축산정책자금 금리인하, 무허가축사 양성화 방안 마련, 도축장 전기요금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야·정 합의를 체결하고 세부적인 대책이 마련 중에 있다.

아울러 최근 축산물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보도 등에 따라 축산물의 소비가 감소하고 소비자들이 기피하게 되는 피해 또한 업

계에서는 큰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협회는 축종별 축산자조금과 공동으로 대대적인 축산물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오리산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2014년 오리산업 결산

매년 가파른 증가폭을 보였던 오리 도축마리수는 2013년부터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2014년 1월부터 11월까지 오리 도축마리수는 약 46백만 수로써 연말까지 약 50백만 수 내외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3년 85백만 수 대비 약 41% 감소한 수준이다. 2012년 5월의 경우 도입수수는 오리산업 최초로 1,000만수를 돌파하기도 하였지만 이후 물량과잉과 오리 소비감소가 겹쳐 현재까지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불황은 결국 농가의 소득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 가축동향조사에 따르면 '14. 9월 오리사육농가는 693호로 전년 929호 대비 25.4% 감소하였다. 오리 사육마리수의 경우도 8,197천수로 전년 12,246천수 대비 33.1% 감소했다. 이중 종오리 사육마리수는 810천수로 전년 1,143천수 대비 29.1% 감소한 수준이다.

오리가격의 경우 산업불황과 AI로 인한 공급량 감소로 전년보다는 상승된 수준을 보이고 있다. '14. 11월까지 3kg 기준 생체오리 평균가격은 7,953원으로 전년 평균 6,299원 대비 26.3% 증가하였다. AI 발생이후 3월부터 오리가격은 점차 상승하여 6월에는 11,733원까지 올라갔으나 이와 같은 오리가격의 상승 이유는 일시적인 신선육 공급부족으로 나타난 것으로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다. 새끼오리의 경우도 종오리마리수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11월까지 새끼오리 평균가격은 1,389원으로 전년 평균 835원 대비 66.3% 상승하였다. 2014년 기준 생체오리 생산비는 5,711원, 새끼오리 생산비는 533원으로써 현재 오리가격은 생산비 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계속되는 불황과 AI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오리 입식(사육)마리수가 대폭 줄어들어 농가의 경영 상황 악화는 계속되고 있다.

지속되는 AI는 협회 내부적으로도 각종 사업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협회는 커지는 산업규모에 따라 오리고기 소비홍보 등 사업강화를 위하여 의무자조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13. 2월에 농식품부의 의무자조금 승인을 받은 이후 대의원구성 및 임원 선출 등의 절차를 마친 상황이지만 이후 발생한 AI로 대의원회 개최가 계속 미루어져 거출금액 결정과 제반규정 마련 등 후속절차들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그밖에도 농장 출장을 통한 지도사업, 농가교육, 오리산업 선진국 견학 등 사업의 실시불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5 오리산업 전망

2015년 국내경기 또한 금년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오리산업의 전망 또한 밝지 않다. 오리고기의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금년 사례와 같이 계절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AI로 생산의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도 도축마리수가 50백만 수 내외로 예상되는 가운데 2015년 도축마리수 또한 금년 수준보다 약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오리고기 소비증가 여부에 따라 유동적으로 보인다.

오리산업은 대부분 외식소비에 의존하고 있는데, 특히 훈제오리 시장에 편중된 소비트렌드는 오리산업의 한계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육계의 후속주자로 불과 수년전부터 대폭 생겨난 오리농가들의 사육환경이 다소 낙후되어 있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소비시장에 맞는 적정물량의 생산이 요구되는 상황이며 소비자의 선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오리 요리법의 개발·보급이 시급한 과제이다. 지금까지 오리산업이 웰빙트렌드로 발전해온 것이라면 이제는 그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소포장 상품개발 등 업계의 특단의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한 수출의 경우 극소량에 그치고 있는 오리고기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수요국들과의 수출협약 체결을 위하여 국가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지금까지 오리산업은 5차례의 AI를 겪으면서 여러가지 굴곡은 있었지만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지금까지 보였던 양적 성장에 맞게 질적 성장을 위해 업계의 자기반성과 함께 고도의 경영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좀 더 세밀한 경영, 훈제와 같이 소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할 수 있는 제품 개발, 적극적인 소비홍보, 새로운 시장개척, 업계의 인식 변화 등의 노력과 의무자조금의 정상적인 시행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오리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